

아시아계 미국인인 카운티 거주자, 학생, 가족이 계속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되어 표적 놀림, 위협, 불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. 이와 같은 행동은 용납할 수 없으며 묵인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. 만약 자녀가 불링/왕따 또는 희롱을 경험하거나 이를 목격한 경우, 학교 교직원에게 이를 알려 주시거나, 불링/왕따와 협박 [양식](#)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 3월 1일과 3월 15일 학교로의 복귀를 준비하며, 협력과 동지의식 구축의 중요성과 아시아계 미국 학생들을 위해 안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함께 일하는지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길 만들기(Waymaking) 에피소드를 시청합시다: <https://news.montgomeryschoolsmd.org/tv/mcps-waymaking-ally-building-creating-safe-spaces-for-asian-american-students/>